

본분 잃은 농협...PB상품 72%에 수입 원료

(자체 브랜드 상품)

8월까지 수입농산물 취급액 2180억원...해마다 급증

하나로 마트·홈쇼핑도 수입산·가공식품 판매 비중 ↑

쇠고기·감자 등 국산 대체 가능 가공식품도 다수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 가공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브랜드상품(PB상품) 89개 중 최소 64개 제품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농협의 브랜드상품 중에는 국내산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쇠고기나 감자, 전

분 등을 수입산 제품으로 사용한 NH쇠고기진국다시, NH허니통감자 등의 제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러시아산 명태, 미국산 자몽과 레몬 등을 이용해 황태포나 차 등을 가공·판매하는 회원조합도 4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1년 2114억원에서 2015년 2499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2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상입위 소속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나로마트와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조사한 결과, 농협이 수입농산물 가공품 판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A하나로마트는 중국산 낙지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산 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이세트, 중국산 부서조기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북의 B하나로마트에서는 베트남산 바나나와 미국산 레몬을, 경기도의 C하나로마트에서는 중국산 낙지, 베트남산 주꾸미, 노르웨이산 고등어, 필리핀산 파인애플,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골드키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서도 수

입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은 많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D갈비찜은 호주산 소갈비, E갈비와 F불고기는 호주산 쇠고기를, G주물럭과 H제육볶음은 수입산 돼지족살을, I돼지불고기백반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브라질산 닭, 미국산 쇠고기, 수입산 고춧가루와 참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농협 본연의 역할은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주된 재료를 수입농산물로 가공한 제품까지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JB금융 김한 회장 ‘노블리스 오블리주’

1억 이상 기부...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인증패

JB금융그룹은 김한 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명동 적십자사에서 개최한 레드 크로스 아너스클럽(Red Cross Honos Club·RCHC) 출범식에서 1억원 이상의 개인 기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공로로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적십자사에서 운영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1주년이 되는 올해 첫 발걸음을 시작했으며, 정기적인 멤버 모임 이외에도 봉사활동, 해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과의 교류, 국제구호활동 참여 등 적십자사 사업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RCHC는 적십자사에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한 후원자 모임이다. 레드 크로스 아너스클럽은 누적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한 고액 기부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김한 JB금융그룹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최창걸 고려이연 명예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우 안재욱, 김은용(개인) 등 기업, 금융, 연예, 문화, 학계, 일반시민 등 각 계각층의 27명이 창단회원예 이름을 올렸다.

JB금융그룹 김한 회장은 “사회지도층들의 나눔 참여가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며 “기부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 회장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110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봉사장 금장을 받은바 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미국, 영국,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리조트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황교안 국무총리(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박상배 금호리조트 사장(# 왼쪽 두번째) 등이 지난 29일 열린 국가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리조트 제공>

금호리조트(사장 박상배)는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최고상인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금호리조트는 지난 2011년 고재만총무부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013년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향상 유공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최고 권위의 기업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호리조트는 손꼽히는 관광지인 통영, 화순, 설악, 제주 등에 위치한 4곳의 직영콘도도 아산스파비스,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인쇄’ 미래 본다

인쇄소공인특화센터, 11일까지 기술경진대회 참가제품 공모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광주 시 동구 서남동 등 지역 인쇄 소공인을 대상으로 11일까지 ‘2016 광주인쇄기술경진대회’ 참가제품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작은 기술성, 창의성, 디자인, 상품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분야별로 4개 과제(총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상 20만원 등 총 600만원 상당의 은누리(전통시장)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수상작은 16일 개최되는 ‘2016 인쇄인의 날’ 행사에 전시할 예정이다. 2016 인쇄의 날 행사에는 지역 인쇄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행사,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 지역 인쇄인의 교류와 단합을 꾀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 행사와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문의 062-236-5015. /김대성기자bigkim@

한전 ‘고용디딤돌’ 인턴 240명 선발

하반기 공공기관 최대 규모

한국전력(사장 조한익)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40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전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에게 2개월간 직무 교육과 전력협력사 현장에서 1~3개월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직무역량을 쌓으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업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지

원자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한전 고용디딤돌 사이트(didimdol.kepco.co.kr)로 신청하면 된다. 사무, 전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희망하는 분야와 과정(직무교육반, 인턴반)을 선택할 수 있다.

2개월 과정의 직무교육은 한전 전문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총 240만원 이내에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 협력사 인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장기 근무할 경우 12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조달청, 지역 우수 조달물품 홍보

5개 업체 8개 제품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은 지난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관계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우수조달물품 PT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 우수조달물품을 홍보하고, 각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우수조달물품은 ㈜티지에프(대표 강용일)의 ‘수도(하수)용 내충격성 PVC관’, ㈜르노맥엘이(대표 백경자)의 ‘비투광성 백색 EMC를 이용한 LED조명’, 은우산업(대표 최희선)의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일체형 물탱크’, ㈜신호엔지니어링(대표 임수연)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비접촉센서 감응방식의 사고 예방진단시스템이 탑재된 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동성기업(대표 문성필)의 ‘미서기) 급속제 찰호’ 등 5개 사 8개 제품이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우 값 고공행진에 수입산도 꺾충

호주 갈비 100g 전년비 33% ↑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서민들 사이에서 한우 대체재 역할을 해온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호주산 갈비 수입가는 100g 기준 1만60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000~1만3000원 선에 비해 23~33%나 급등했다.

보다 18%나 뛰었다.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최근 호주 지역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목초지가 부족해져 현지 쇠고기 공급 물량이 줄어든 데다 국내의 경우 한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수입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매가가 2kg 기준 6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의 5만5000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평균 경락가는 지난해 29일 현재 kg당 1만8228원으로 2014년 9월 평균 경락가 1만5198원에 비해 20%가량 상승한 상황이 다. /연합뉴스

축성 563주년

제43회 고창 모양성축제

2016. 10. 5(수) ~ 9(일) (5일간)

고창군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역사는 미래다”